효성, 멕시코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

조현준 회장, 멕시코 대통령 면담 사업협력 논의
ATM 8000대 수주…전력 인프라사업 참여 추진

인도·베트남 총리도 만나

효성이 멕시코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8000대를 수주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효성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6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사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효성의 정보기술(IT) 계열사 효성TNS는 최근 멕시코의 대형 복지 정책 '농촌(Rural) ATM 프로젝트'에 필요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8000대를 전량 수주했다.

조 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효성이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멕시코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전달체계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조 회장은 '야구광'으로 알려진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 싸인이 새겨진 야구 배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효성은 조 회장이 면담 이후 멕시코시티 복지센터를 방문해 효성의 ATM을 점검하고 사용자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멕시코 주요 각료들과도 만나 효성의 전력·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멕시코 전력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의 '농촌 ATM 프로젝터'는 정부가 복지 카드를 지급해 수혜자가 ATM에서 직접 현금을 찾도록 하는 사업으로 조 회장이 지난해 초부터 수주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효성TNS는 내년 말까지 ATM 8000대를 납품, 멕시코 내 시장점유율을 2%에서 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효성TNS는 지난 2017년 미국 51개주 중 40개주에 설치된 ATM 작동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이 기업은 미국 체이스뱅크, 스베르반크, 인도네시아 BCA 등 세계 주요 대형 은행에 독자 개발한 환류기 및 셀프뱅킹 솔루션 등 다양한 금융자동화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조현준(왼쪽) 효성 회장이 지난 6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ATM 설치,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회장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 싸인이 새겨진 야구 배트를 선물하고 있다. 〈효성 제공〉

앞서 조 회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위안자쥔 중국 저장성장 등 사업 대상 국가의 주요 인사를 만나 사업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4.29 (+0.14)	↑ 금리 (국고채 3년)	1.54 (+0.01)
↓ 코스닥	666.15 (-3.53)	↑ 환율 (USD)	1159.30 (+2.40)

'중기와 상생' 혁신도시 공기업 동반성장 포상

aT 국무총리 표창, 한국농어촌공사·한전KDN 장관상

이병호 사장

김인식 사장

박성철 사장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기업들이 '2019 동반성장주간 정부포상'을 받았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한전KDN(사장 박성철)는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게 수여된다.

aT는 농식품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업기관 최초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aT는 국내 직매장 및 장터 지원을 통한 직거래 유통기반 확산하고 중소식품기업의 국산 식재료 구매와 공동구매를 조직화한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상자 명단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전KDN도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과 행복한 동행 상생 파트너십 실현'을 내걸고 성과공유제를 운영하며 혁신기술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적극 추진해왔다.

또 공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부여해 중소기업 기술발전을 지원했다.

한전KDN은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전KDN은 정보보안 무료컨설팅, 협력연구개발사업지원 등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협력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관련 전시전을 열고 에너지 ICT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및 교육 지원을 진행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중기부가 연결자로서 대기업의 강점이 중소기업들에게 연결되는 분업적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전남농협, 대상·금·은상 등 7개 수상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가 총 7개의 수상 마을을 배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7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금·은상을 포함해 전국 최다 수상을 이뤘다고 밝혔다.

'영암 쌍정마을'은 '들녘 가꾸기' 부문 대상에 올랐고 '고흥 신호마을'과 '여수 반월마을'은 같은 부문 은상을 받았다.

'마을 가꾸기' 부문에서는 순천 서동마을이 금상을 수상했고 고흥 신촌마을, 나주 신광 행복마을, 무안 구로마을이 동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석기 본부장은 "갈수록 노령화되고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 마을과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도시민들이 찾아와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는 마을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촌마을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번째 열린 이 경진대회는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접수를 받아 예선 심사 및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 수상마을에게는 최고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서부발전·광주MBC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6일 해양에너지 대회의실에서 한국서부발전(김병숙 사장), 광주MBC(송일준 사장)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수소생산 및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3개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소㈜가 타당성 검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확보, EPC(설계, 조달, 시공) 수행 등 사업개발 주관, ㈜해양에너지는 사업부지 발굴 및 확보 지원과 도시가스 공급, 광주MBC는 지자체 협력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는 "해양에너지는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을 기반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및 분산형 전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조달청, 15일까지 69억 물품 입찰

20억 규모 선사체험관 12일

2021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광주 선사체험학습관에 대한 물품 입찰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광주지방조달청이 69억원 규모 물품 입찰을 오는 15일까지 집행한다.

7일 조달청 '물품·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에 따르면 광주조달청은 오는 11~15일 32건에 대한 69억원 규모 입찰을 집행한다.

광주조달청의 이달 셋째 주 입찰규모는 전체(3750억원)의 1.9%로, 올해 누계분 점유율은 5.9%이다.

주요 입찰 내용을 보면 광주시의 '선사체험학습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한 20억원 규모 개찰이 오는 12일 협상계약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12억9000만원 규모의 '광주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수납식 관람석 제작 설치' 건에 대한 입찰이 13일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0억8100만원 규모 '2020년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에 대한 개찰을 협상계약 방식으로 12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